

철학의 동양화와 비과학화

글 | 엄정식 _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jsumek@hanmail.net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 22차 세계철학대회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900년도 대회에서 시작된 이 철학대회는 이미 1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그 동안 한 번도 동양권에서 개최된 적이 없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동양에 고유한 의미로 ‘철학’이라는 것이 없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고대 아테네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철학은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서구의 사유체계이며 논리와 수학,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의 영향을 받아서 발달된 비동양적인 사고의 형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회를 동아시아의 중심도시 중 하나인 서울에서 열게 된 것은 새로운 철학관의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서울 대회의 주제는 ‘오늘의 철학을 다시 생각한다’ 였다. 그것은 동양 철학과 연관하여 철학을 새롭게 규정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급속도로 발달하는 과학기술과의 관계 속에서 철학을 그 주제나 접근 방법에 있어서 새롭게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 두 가지 쟁점을 두고 철학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제22차 세계철학대회, ‘오늘의 철학을 다시 생각한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철학을 정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철학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철학적 주제의 하나가 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철학의 두 측면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론적 체계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적 지혜의 측면이다. 철학이 형성된 시기에는 비록 세련된 형태는 아니지만 두 측면을 균형 있게 보여줄 수 있었으나 점차 후대로 오면서 그 양상이 달라졌다. 서양의 중세에는 종교적 신앙의 문제와 결부되어 실천을 통한 구원의 한 방안으로 발전하였고 사변적 체계의 심화를 통해서 이론적으로도 세련된 면모를 보여주었다. 한편 동양에서는 철학이 정치적 현실의 세속적 영달의 도구로 변화하여 이론적 체계의 개발보다는 내면적 수양이나 처세를 위한 지혜의 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분기점을 마련한 것은 서양에서 근대과학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뉴턴 등은 실험과 관찰 및 추론을 통해서 존재의 세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애썼고 여기서 합리성의 개념이 파생되었으며, 이것을 근거로 정의와 자유, 그리고 도덕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특히 칸트와 헤겔을 거치면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이론의 성격을 띠게 되자 이에 반발하는 철학자들이 등장하였다. 가령 니체는 근대적 합리성의 상징적 존재로 간주되던 그

리스도교의 '신은 죽었다'고 외쳤고, 마르크스는 철학의 목적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있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이러한 반발과 수정의 분위기로부터 시작된 현대철학은 그 형성기로부터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동양 철학은 서양 철학이 겪은 과학적 탐구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법론의 핵심인 논리와 수학, 혹은 실증적인 방법을 도입하지 않았고 여전히 종교적 색채가 짙은 고전의 다양한 해석에만 주력해왔다. 물론 논어나 금강경 혹은 도덕경에 주옥같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으나 그것이 서구적인 의미의 '철학'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중국철학사'에서 풍우란(馮友蘭)은 20세기 초에 듀이나 러셀의 영향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술회하며 이른바 서양철학의 '논리적 분석'이라는 적극적인 방법이 동양에는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여기서 옛날 일화를 소개한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신선을 만났는데, 신선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금을 원한다고 말하였다. 신선은 손가락으로 옆에 있는 돌맹이를 만지니까 그 돌맹이는 금방 금으로 변했다. 신선은 그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했으나 싫다고 했다. 그러자 "그 밖에 또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그 사람은 "나는 당신의 손가락을 원한다"고 대답했다는 중국 이야기가 있다.

풍우란이 이해하기에 분석적인 방법은 서양 철학자의 손가락이며 중국인은 그 손가락을 원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 철학이 곧 동양 철학은 아니며 인도의 불교나 힌두교에는 세련된 분석적 방법이 도입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명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뿐 경험적 과학의 발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이 대략 동양에서 철학이 종교적 명상이나 정치적 영달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지혜'의 한 형태로 머물렀던 이유이다.

서울대회 계기로 철학 새롭게 규정될 듯


그렇다면 서울에서 세계 철학대회가 열렸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철학이 지니는 실천적 지혜의 측면을 의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양 철학에서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서양 철학이 현대로 접어들면서 사변적 이론의 체계를 정립하

는 데 스스로 한계를 느꼈고, 그 체계는 실천적 차원의 현실에서만 비로소 의미를 지니고 또 완속해질 수 있다는 심증을 얻었기 때문이다.

풍우란이 말하는 '분석적인 방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논리적 분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근대과학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논리'를 무엇이라고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종류의 방법이 된다. 가령 러셀에 의하면 논리는 사유의 법칙이며 존재의 세계를 이해하는 통로를 마련하며 진리를 발견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듀이에게 그러한 의미의 논리는 수많은 논리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에게 논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에 따라 더 좋은 논리가 있고 그렇지 못한 논리가 있다. 그러므로 진리는 실용적인 결과로부터 파생된 개념일 뿐이다. 우리가 러셀을 분석철학자로 부르고 듀이를 실용주의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듀이의 입장을 계승하고 더욱 급진적으로 발전시킨 리처드 로티는 신실용주의를 창안하면서 '민주주의는 철학에 우선한다'는 말을 남겼다.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철학적 진리보다 소중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과학적 탐구의 결과도 이러한 담론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셀의 후계자들은 그러한 태도를 과도기적 현상의 하나로 본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 출신의 미국 철학자 김재권 교수는 이렇게 지적한다.

그렇게 되면 철학적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가 일반적으로 비치칭적으로 되어 버린다. 과학에서 다루는 진리와 지식 역시 표상이 아니라 사회적 관행이나 승인의 문제가 된다. 과학도 또한 이미 탐구이기를 그만 두고 대화가 되고 만다.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세계 철학대회를 계기로 철학이 새롭게 규정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동양화와 비교학화를 의미하는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 볼 일이다.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웨인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